메트로 2013년 10월 15일 www.metroseoul.co.kr

일제 아홉살 소녀도 강제노역

NEWS p/02

폐암 유발 라돈 농도 세계2위

NEWS p/03

국감 '20일 대장정' 첫날부터 정면충돌

p/02

'대세' 엑소 100만장 눈앞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제2830호 www.metroseoul.co.kr

류현진 "우조건 이기겠다"

두산 넥센 꺾고 3년만에 PO행

14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5차전 두산과 넥센의 경기에서 넥센을 8-5로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두산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양팀은 홈런 5방을 서로 주고 받으며 명승부를 펼쳤다 <관련기사 21면> /뉴시스

<Good Game 항복 뜻하는 은어>

'4대중독 오명' 게임한류 G.G?

한국대표 국제게임전 '지스타' 국내 메이저 업체 1곳만 참가· 정부 '게임 색안경'에 최대 위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2005년 출범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게임업계의 위기로 연결될까 우려된다.

다음달 14~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지스타 2013이 기업과 바이어를 위한 '그들만의' 사업장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까지 지스타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 서울(부산)모터쇼와 함께 국내 양대 전시회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올해는 관람객을 맞는 B2C관에 간판을 올리는 메이저 업체가 2개사에 불과하다.

이번에 B2C관에 제품을 출시하는 유명 기업은 넥슨,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정도이며, 포털 다음이 장사 아래 처음 온라인게임 '검은 사막'을 알리기 위해 참가한다.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국가 게임 전시회들 코방케은 지스타의 메인 전시장에 얼굴을 내미는 토종 메이저 게임사는 사실상 넥슨 한 곳뿐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B2C관은 지난해 1385부스보다 150부스 줄어든 1235부스로 운영되며, 1호사이언 모나와 누리스타덕스 무시미디어 제닉스 쉬게이밍넷 엔비디아 오큘러스 브이알 샌디스크 등 일반 관람객에게 다소 낯선 기업들이 전을 칠 예정이다.

기업 간 거래를 다루는 B2B관에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엑토즈소프트, 스마일게이트, 네이버, CJ E&M 게임빌, 컴투스, 엠게임 등 메이저 업체가 참여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지스타 2013의 이 같은 위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됐다. 먼저 게임 산업의 축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회는 앞으로 나올 신작을 미리 체험하는 성격이 강하다. 제작에 최소 2년이 걸리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이런 특성에 잘 부합한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은 제품 사이클 자체가 다르다. 기획에서 완성까지 이르면 한 달이면 충분한 경우도 있어 전시회에 내놨다가는 본전도 뽑지 못하기 일쑤다.

게다가 모바일게임은 카카오톡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게임의 홍보와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오프라인 전시장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더불어 지스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스를 확보한 뒤 마케팅을 하려면 최소 20억원이 드는 고비용 구조를 영업이익률이 낮은 모바일게임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또 다른 배경으로 정부의 '반게임' 정서가 꼽힌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게임을 마약, 도박, 술과 함께 '4대 중독'으로 지정한 뒤 국가가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도 게임을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보고 길들이기에 나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메이저 게임사들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게임산업협회(현 K-IDEA)와의 관계를 고려해 '타의반 자의반'으로 참가하는 경향이 짙었지만 이제는 '눈치 볼' 필요조차 없어진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서 지스타 참가를 더욱 꺼리게 됐다.

국내 메이저 게임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중독 산업으로 몰리는 마당에 해외시장 개척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올해 지스타는 자칫하면 부산, 특히 해운대구와 지역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불법 꼼짝마!

인사동·명동·이태원에 관광경찰대 101명 뜬다

서울 이태원·동대문·인사동·명동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광경찰대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선서문 낭독, 기마대 공연 등을 포함한 관광경찰 출범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관광경찰대는 영어·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을 갖춘 경찰관 52명, 의무경찰 49명 등 101명으로 구성됐으며 관광 관련 소양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마쳤다.

이들은 각 관광 명소에 조별로 배치돼 외국인의 쇼핑, 이동 등을 돕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바가지 요금, 불법 콜밴 영업, 관광지 범죄 예방 및 기초 질서 유지, 관광 불편 사항 처리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또 이들은 한국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도록 디자이너 김서룡씨가 제작한 별도의 경찰복을 입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안내전화 1330을 이용해 관광경찰에게 간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유라기자 [illegible]

'무료 국제전화' 폭발적 호응

0044 무료국제전화

가입절차나 기본료 없이 무료로 국제통화가 가능한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휴대폰에서 1544-0044로 전화를 건 다음 음성안내에 따라 국가번호와 상대방번호, #(우물정자)를 누르면 국제전화 요금없이 국내통화료만으로 국제전화가 가능하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무료통화분수에서 별도 과금없이 차감되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서비스이다.

새로 나온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통신사별 최대 300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무료분수를 초과하여도 국내통화료만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0044' 로 검색하면 '0044무료국제전화' 어플을 설치할 수 있다. 이용 국가는 미국·캐나다·중국 등 20개국이다.

02-652-7544 www.15440044.co.kr

구직자 두 번 울리는 대출사기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동양그룹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판매해오다 끝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 등 일반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일반인들은 변질하는 금융사기에 무뎌진 편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대출사기를 벌인 업체까지 나타나는 등 사회 전반의 금융 윤리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현상이 감지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적발한 사례를 보면 회사가 구직자에게 취업 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요구하고서 구직자 몰래 인터넷 대출 등을 받아 챙긴 경우까지 나왔다.

또 한 가상의 증권선물투자의 경우 취업 조건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 후 대출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구직자들은 대출금을 날렸고 상당수가 채무 불이행자가 됐다.

물론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올라온 미확인 회사에 섣불리 찾아간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절실한 심리를 사기 행각에 교묘하게 이용한 업체의 책임은 과중하다.

금감원이 전국 대학교에 구직을 미끼로 한 사기대출 방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니 상황의 심각성을 알 만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사기부터 당한다면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금융감독 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과서 공방' 새누리당 강은희(오른쪽)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 역사 왜곡 논란 교과서와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적은 문구를 노트북 컴퓨터에 시위하듯 붙여놓은 채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교과서 '충돌'

여야, 국감 첫날부터 얼먼 공방…정상회담 대화록 등도 도마에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20일간 630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첫날인 14일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벌였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감 첫날부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싸고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따지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유세 장소에 비밀 기록을 들고 나가 유세한 것은 대통령 기록을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역공을 폈다.

국방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차기 전투기 재검토 등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을 놓고 "군사 주권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사일런트 이글)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스텔스기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의 전력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후퇴 논란으로 관심의 초점이 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법안은 세대 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간 갈등과 위화감을 폭발하는 역작"이라고 비판하며 현 65세(1948년생)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6%만 기초노령연금의 최저 선인 10만원을 받지만, 55세(1958년생)와 45세(1968년생)의 경우 각각 24%, 21%나 10만원만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만 있으면 어르신들 다 혜택을 주겠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 100% 지급 공약을 못 지킨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국토교통위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담합·비리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장연우기자 mykim@metroseoul.co.kr

노벨경제학상에 파마 등 미국인 교수 3명

유진 파마(74)·라스 피터 핸슨(61)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67) 예일대 교수 등 미국인 경제학자 3명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광을 안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자산 가격의 경험적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들 3인을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지만 향후 3~5년 정도 장기적 가격에 관해 예견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놀랍고도 모순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왼쪽부터 유진 파마, 라스 피터 핸슨, 로버트 실러 교수 /AFP 연합뉴스

/김연준기자

'성혜장학금' 7140만원 지급

성혜장학회(이사장 김성혜 한세대학교 총장)는 지난 11일 2013년도 제2기 장학생 53명을 선발하고 장학금 총 7140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성혜 이사장은 생활 환경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장학회를 설립, 지난 6년간 총 476명에게 장학금 6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www.shscholar.com

"일제, 9세 소녀도 강제노역 동원" 공장 女노무자 평균 13세

일제강점기에 9세 아이부터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노역에 동원돼 탄광과 공장에서 중노동을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14일 조선인 여성 노무자 강제 동원 피해 사례로 결정된 1039건(피해자 1018명)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여성 노무자의 평균 동원 연령은 16.46세였고, 공장으로 동원된 여성 노무자들로 한정하면 평균 연령이 13.2세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노동 가능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일본법도 어기는 '만행'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의 정혜경 조사2과장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징용 기준이 달랐다"며 "일본은 1941년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 대상을 16세 이상~40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조선인에 대해서는 아동까지 강제 동원하는 만행을 부렸다"고 밝혔다.

여성 노무자의 강제동원은 공장 동원이 6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광(143건), 농장(121건)·토건, 작업장(17건) 동원이 뒤를 이었다.

/김연준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국감 출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가운데) 할머니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후 민주당 정청래 의원 인사를 받으며 감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효성 총수일가 겨누나

검찰, '금고지기' 고모 상무 등 줄소환 …수천억 탈세의혹 본격 조사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구체적 경위와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효성그룹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과 국세청 고발 자료, 효성그룹 관련 계좌 추적 자료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석래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모(54) 상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고 상무를 시작으로 효성그룹의 회계·재무담당 임직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본격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일 그룹 본사와 효성캐피탈, 조 회장의 주거지 등 7~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조 회장과 세 아들 현준(45)·현문(44)·현상(42)씨를 비롯해 이상운(61) 부회장, 고 상무 등 임원 상당수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생기자 이후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그만 그렸지'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아름다운 공유' 기증특별전을 찾은 관람객이 옛 선조기와 타자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삶의 희망' 못준 자살상담

올해 스스로 목숨 끊은 학생 48% 상담 받아

최근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3명 중 1명은 학교 내 상담실 등에서 치료를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위(Wee) 클래스 등을 통해 상담·치유 받은 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717명 중 32.1%에 달하는 230명이 생전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9년 자살 학생 203명 중 상담을 받은 학생은 42명(20.7%)이었고 2010년에는 146명 중 40명(27.0%), 2011년에는 151명 중 53명(35.1%), 2012년에는 142명 중 60명(42.3%)이었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7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47.9%인 35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담을 받은 학생 60명 중 32명, 올해는 35명 중 13명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선별됐다.

상담 학생 중 나머지 절반은 자살 징후가 두드러지게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백발 어르신들 열정의 체조 백발이 하얗게 내려앉은 어르신이 14일 강원 춘천시 호자동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강원도 건강단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참가해 건강 체조 동작을 흥겨운 음악에 맞춰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내 폐암유발 라돈 농도 '세계2위'

중국보다도 2.8배 높아

국내 주택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 검출량이 2010 세계보건기구(WHO)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에서 조사된 29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실내 라돈 조사 현황'이와 2010 WHO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7885세대의 연평균 라돈 농도는 ㎥당 124.9Bq(베크렐)로, 140Bq이 검출된 체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핀란드(120Bq), 룩셈부르크(115Bq), 스웨덴(108Bq)이 한국의 뒤를 이었다.

인접 국가와 비교하면 일본은 주택 내 연평균 라돈 농도가 16Bq, 중국은 44Bq에 불과해 우리나라보다 각각 7.8배, 2.8배 낮았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마련한 2014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까지 국가라돈지도 작성을 마치고 나서야 지각 방사성 물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는 향후 5년간 국민이 라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준기자

서울시의원 의정비 최고

전국 광역 및 기초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서울 강남구의회가 가장 높은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 참조)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올해 서울시의회 의정비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62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기초 의회 중에는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비가 49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민준기자

"나이키 '갑질' 6억원대 배상하라"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4일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의 골프 클럽과 용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나이키코리아와 맺었다. 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다.

그러나 나이키코리아는 올해 초 판매가 부진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판매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부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지 조건으로 한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스파이 마타 하리 총살

1917년 10월 15일 세기의 매혹의 여성 스파이 마타 하리가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총살돼 4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녀는 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와 독일을 오가며 군사 정보를 판 이중간첩으로 알려졌다. 본명은 M. G. 젤러로,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장교와 결혼해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춤을 배웠고 이혼 후 파리의 물랭루주에서 섹시 댄서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가 저명인사와 고급 장교를 상대로 처신을 하며 군사기밀을 빼내는 스파이 활동을 했다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고 독일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프랑스 군부의 희생양이었다는 설이 분분하다. 마타 하리는 인도네시아어로 '여명의 눈동자'라는 뜻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근로자복지서비스 전문기관

회사에 인사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직장에서 승진,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한민국 근로자의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감과 예기치 않은 시련 때문에 근로자로 사는 것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는 더욱 그렇다.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공공기관이 있다. 산재보험·근로자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다.

A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학자금을 대출받아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결혼하고 싶은데 적은 월급에서 매달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니 여유가 없었다. 다행히 공단의 혼례비 대출을 통해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다.

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결혼 후 3년 만에 A씨는 소중한 딸을 낳았으나 맞벌이 부부라서 보육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하지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

이집에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어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었다. 공단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국 24개 어린이집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A씨는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업무상 출장 중 교통사고가 발생, 허리와 다리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것이다.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공단의 산재보험 서비스를 통해 치료받고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의 재활 치료는 최고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요양 초기부터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건강하게 원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가 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 소규모 회사의 불안정성, 적은 월급 등으로 노후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A씨에게 희소식이었다.

공단은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은 수수료와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슈퍼맨' 같았다. 공단은 결혼에서 육아, 산업재해 그리고 노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준다.

이 밖에도 공단은 임금 체불 시 체당금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료 징수,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EAP) 제공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과 공단 사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공식 블로그(http://blog.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줄지어선 택시 …놀라지 마세요" 택시 기사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작업을 위해 택시를 줄지어 세워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시간 선택제 교사 내년 하반기 도입

하루 4시간·주 20시간 … 정년 보장되지만 승진 더뎌

정년을 보장하되 승진과 보수를 근무 시간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정규직 교사에 비해 승진이 느릴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지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이과 융합 여부를 비롯한 2017학년도 이후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방식을 개선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방안(시안)은 다음달 발표한다.

올해 말까지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축해 내년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 선행교육금지법안 하반기 발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연계해 올해 하반기에 사교육 경감 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김유리기자 grace@metroseoul.co.kr

지난해 귀농 사상 최대 1만1220가구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 가구가 2년 연속 1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귀농가구 수가 사상 최대인 1만1220가구였다고 14일 밝혔다.

귀농가구 수는 2001년 880만 가구에 불과했으나 2004년 1302가구, 2008년 2218가구, 2009년 4080가구, 2010년 4067가구로 늘다가 2011년 1만503가구로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경상북도가 208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1733가구, 경상남도 1434가구 순이었다.

경기도는 2011년 224가구에서 2012년 1027가구로 증가한 반면 강원도는 2011년 2167가구에서 2012년 972가구로 줄었다. /김유리기자

오늘 금천구 알뜰도서 교환전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천구청 앞 광장에서 '알뜰도서 교환전'을 연다.

새마을문고 금천구지부 주최 행사로 문고 회원이 기탁한 도서 500여 권이 비치될 예정이다. 1명당 1권 무료 교환이 가능하며 헌책 3권은 신간 도서 1권과 교환된다.

기초수급자 복지제도 설명회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신규 기초수급자를 위한 사례 중심의 '복지제도 설명회'를 16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연다.

구청장이 직접 정부 복지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동시에 수급자 애로사항 청취 등 간담회도 실시한다. 또 일대일 맞춤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2199-7072

이천수 "혼자 시비 참느라 그랬다"

술병 쓸어내렸을 뿐 취객 폭행한 적 없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이천수(사진)가 14일 폭행시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술집)에서 이천수가 다른 손님 김모(29)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천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다 이천수로부터 두 차례 뺨을 맞았고 이천수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액정이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천수는 맥주병 약 20개를 깨뜨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천수는 이날 오전 구단을 통해 "김씨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며 "아내와 함께 있는데 김씨가 시비를 걸어 와 참다 참다 못해 테이블 위의 술병을 쓸어내린 것이 전부"라고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장윤희기자 yuni@

해태

Korea Brand Power 1
2013년 7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부라보 Lucky 7 페스티발

부라보콘 상단 내면에 **"당첨"**이 나오면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1등 LG 디오스 냉장고(820L) 3명
2등 삼성 LED TV(40인치) 4명
3등 아이패드4(16G) 8명
4등 삼성 로봇청소기 10명
5등 황금열쇠(금 3.75g) 20명
6등 부라보콘 1박스 100명
7등 영화관람권(1인 2매) 200명
행운상 문화상품권 1만원권 500명

※당첨 시 상단 내면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후, 당첨 인쇄된 상단부분 발송

자세한 참여방법은 www.ht.co.kr을 창조하세요.

행사기간 : 2013년 11월 20일까지
경품지급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5만원이상(1등~5등) 경품당첨자에게는 제세공과금(22%)이 부담됩니다
※실제 경품은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의 참여(경품수령)는 만 19세 이상 성인대상입니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metro Mexico

Jóvenes, sin emp

86%

청년 51%, 부모 곁 안 떠나는 '캥거루족'

멕시코 청년 절반이 독립을 미룬 채 부모와 사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구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청년의 51%가 경제적인 이유로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다. 과거 멕시코에서는 20세 전후로 독립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청년들은 독립을 자발적으로 미루고 있다.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의 청년 실업률은 8.2%에 달한다.

metro Brazil

Mega-Sena. Ganhador não vai buscar prêmio

R$ 23 mi

1117억 복권 당첨 주인공 끝내 안 나타나

브라질에서 2억3000만 헤알(약 1117억원)의 복권 당첨금 주인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남부 파라나주의 폰타그로사에서 복권을 구입한 신원 미상의 주인공이 90일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만약 당첨자가 상금 전액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번주까지 이자로만 약 34만5000헤알(1억 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금 전액은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책 안 사도 눈치 안 주는 서점

중국 난징 센펑서점 "책 편히 읽고 가라" 300석 도서관까지 마련··'독자들의 천국' 목표

최근 미국 CNN은 중국 장쑤성 난징(南京)시의 센펑(先鋒)서점에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 서점이 아름다운 이유는 화려한 외관이나 눈에 띄는 간판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서점은 볼품없는 지하 차고에 위치해 있다.

센펑서점 주인 첸사오화는 50대 중년으로 1999년에 난징시 우타이산(五台山)체육관 지하 차고를 샀다. 원래 이곳은 방공호였다가 정부 주차장으로 쓰이던 곳이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난징대학에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센펑서점은 난징대학 제2의 도서관이 됐죠. 제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점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베스트셀러 목록이 아닌 보당의 생각하는 사람 이다. 서점의 계산대도 수많은 책을 쌓아 만들었다. 1층과 2층 사이의 경사로 가운데에는 주차장으로 쓰일 당시 그려진 노란색 차선이 있고 양쪽에는 책들이 쌓여있다. 뒤를 돌아보면 빛이 나는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천장에는 그림들이 걸려있다.

처음 센펑서점을 연 무렵 첸은 기독교 신자가 됐다. 그는 서점의 위치를 난징 성바오르대성당 맞은편으로 정하고 매일 가서 찬송가를 들었다. 그 당시 서점의 크기는 17㎡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우타이산 본점의 규모는 4000㎡나 된다.

하지만 종교가 센펑서점의 유일한 특징은 아니다. 문화정신이야말로 서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는 독서는 신앙이, 센펑서점은 독서들의 천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점에서는 자주 문화 강좌가 열리고 서점 내 카페에서는 고객들이 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디자인이 뛰어난 도서들만 전시된 코너도 있고, 난징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파는 코너도 있다.

그는 센펑서점을 공공도서관으로 여긴다. 서점 2층에는 좌석 300여 석이 마련돼 있어 책을 사지 않는 고객들도 편히 책을 보도록 했다. 그는 "독서 공간과 풍부한 서적을 제공하는 서점이 좋은 서점"이라고 강조했다.

센펑서점을 찾는 발길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서점은 난징의 랜드마크가 돼가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Sweden

abbdjuret g nnlar under

옴벌레 급속 확산 원인은 태블릿PC?

스웨덴에서 옴벌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옴벌레 전염 확산의 주 요인이 태블릿 PC와 TV 게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옴벌레는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거미 형태를 띤 진드기로 사람의 피부 안으로 파고들어 그 안에 자기들만의 통로를 만든다. 그 안에서 알을 까기도 하며 부화한 애벌레들은 그 안에서 자라며 성장하면 다시 피부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닌다. 옴벌레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가려움증을 겪는다. 이 가려움증은 오래 가면서도 그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옴벌레를 박멸하는 치료 연고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 베름란드와 스코너 지역에서는 무려 80% 정도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25%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릴마리아 페르손 스카라보리 병원장은 옴벌레 전염이 주로 젊은층에서 일어나는데 피부 간의 접촉을 유발하는 태블릿 PC와 TV 게임이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옴벌레가 다른 사람의 피부에 파고드는 데 5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화장실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태블릿 PC 판매에서 평균 600마리의 박테리아가 발견됐고, 스마트폰에서는 평균 140마리의 세균이 발견됐다. 반면 변기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는 20마리에 불과했다. /noh 보현손 기자

정리=김동래 인턴기자

전국 대학생들이 뽑은 선호도 1위 브랜드

두산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KB국민은행
스포츠서울
KYOBO 교보문고
세브란스병원
GS칼텍스
MBC
금호타이어
종로유학원
한겨레
saramin
posco 포스코건설
유한양행
metro
albamon
매일경제
삼성전자 SAMSUNG
posco
hancom 한글과컴퓨터
DAEMYUNG RESORT
PAGODA
onemount

대한민국을 이끄는 파워, 대학생들이 선택했습니다.

글로벌 인재들의 손안에서 세계는 더 빠르게 변화합니다.
기업의 미래는 세계로 꿈을 꾸는 350만 대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세계의 대표 기업이 됩니다.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코스닥
2020.27 (-4.83)	531.55 (-0.34)
금리	환율
2.82 (+0.02)	1072.00 (변동 없음)

'선물투자 구인광고' 낚여 400명 50억 피해

금융 당국은 14일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청년 구직자에게 대출을 유도해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가짜 증권선물투자회사 직원 모집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다음 구직자에게 취업 조건으로 계좌당 500만원이 입금된 증권선물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때원 2만원(1계좌)~10만원(4계좌)의 인센티브를 주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도 시켜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대출금만 가로챘다. 피해자는 약 700여 명으로 대부분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다. 이 중에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현재 400여 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 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요구해 제공하는 경우 본인 몰래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임현주기자

뉴스 & 뉴스

못 생긴 모과? 예뻐졌네 14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햇모과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청도에서 수확한 햇모과를 100g당 35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사망자 계좌로도 입금 가능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가능해진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9개 은행은 입금까지 제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올해 안에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고쳐 사망자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상반기 보험사기 15% 급증

●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이 257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위·과다 사고 적발액이 1834억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또 고의사고 410억원(15.9%), 피해 과장 138억원(5.3%) 등이었다. 허위·과다 사고 중에서는 사고 내용 조작(17.0%), 음주·무면허운전(12.3%), 운전자 바꿔치기(10.2%) 등이 많았다. /김현정기자

동일업종내 주가 격차 감소

● 올해 들어 업종 내 종목 간 주가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8개 업종의 최고가와 최저가 종목 간 주가 배율(최고가/최저가)은 지난해 말 903.17배에서 이달 8일 기준 712배로 줄어들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업종은 의료·금융이며 유통, 통신, 의약품, 의료정밀은 차이가 더 벌어졌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문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표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254-2800
독자센터 (02)721-9785

'중기 적합업종' 손 못뗀 대기업

LG전자·LS산전·코오롱·대성가스 등 4곳 적발

LG전자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LG전자·LS산전·코오롱·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중앙회·전경련과 합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업종·품목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현장 방문 및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LG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샤워 유니트'에 대해 '확장 자제'를 권고받았지만 포스코건설에 납품했다. 또 LS산전은 사업 축소 권고를 받은 '배전반'에 대해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선반 공사를 낙찰받았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를 권고받았지만 대구지역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했다. 코오롱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맞춤 양복' 업종에서 '진입 자제 및 가성용어 사용 금지'를 권고받았지만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상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7건에 대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LG전자는 LED 등 조명기구'에서 '일부 사업 철수'를 권고받았지만 계명대와 유한대학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대기업 6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수", "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기존 거래선 인수인계 등 업종 특성상 당장 철수가 어렵다"는 등으로 소명했지만, 오영식 의원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뤄져 2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자세가 부족해 위반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석준기자 kyeah@metroseoul.co.kr

'아저씨 정장' 찢고 '오빠 정장'으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 앞에서 열린 F/W 비즈니스 캐주얼 제안 패션쇼에서 직장인 모델이 오레인 룩을 아래 새로운 패션을 제안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즘 분양시장 '단풍보다 진풍경'

위례 '송파 와이즈 더샵' 등 견본주택마다 수만명 몰려

아파트 분양 시장에 가을 훈풍이 불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견본주택마다 방문객이 수만 명씩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위례신도시 송파권역 C1-4블록에 시공하는 '송파 와이즈 더샵' 견본주택에 11~13일 사흘간 예비 청약자 2만8000여 명이 몰렸다. 같은 기간 동원개발이 미사강변도시 A22블록에서 선보이는 '미사강변 동원로얄듀크' 견본주택도 2만1000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았다.

이처럼 예비 청약자가 몰리는 이유는 매년 가을이 연중 최대 분양 성수기인 데다 8·28 대책 이후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마곡지구나 위례신도시 등과 같은 생활 편의성이 높은 알짜 택지지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마곡지구는 인근 아파트값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 실수요 측면의 장기적 투자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는 강남권 인근으로 분양가가 3.3㎡당 1700만~1800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하지만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전에 분양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분양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국감장 데뷔한 미래부에 뭇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호가 첫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 자료 제출 여부, 창조경제 구현 방안 등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14일 미래부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초반부터 시작됐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미래부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휴대전화 유심(USIM) 도입 배경,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수거 현황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미래부는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실무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자료 미제출 문제는 통신비 원가 자료 제출로도 이어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 법원에서 통신비 원가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항소를 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미래부가 국민의 편인지 기업의 편인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내놓았다. /이재영기자

강세장 앞둔 '마지막 진통'

국내 증시 전문가들 '장밋빛 4분기' 전망 잇따라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연달아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인의 사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중국 경제성장 등의 호재가 나오면서 하반기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美 불확실성 완화·中 회복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강세장 진입을 위한 마지막 진통 과정을 겪는 중"이라며 "미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중국·유럽 등의 경기 모멘텀이 부각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 정치권의 협상 노력이 가시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또 지난 9일 발표된 독일의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유럽의 경기회복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고 중국도 국경절 연휴 기간에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매수세 지속" 분석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참고할 때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은 투자 유망 지역"이라며 "외국인의 매수세는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한 점도 국내 증시 상승의 근거로 꼽혔다.

시장의 관심은 미국 재정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서 중국의 경기 회복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만 동양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타협점을 찾아갈수록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번주에는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에 눈길이 쏠렸다"고 전했다.

하반기 유망 종목이나 업종으로는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중소형주와 중국 경기 회복의 수혜주가 거론됐다.

전상용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주의 경우 수익률이 바닥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재만 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에서 이익을 보는 국내 소재·산업재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 업종 내 오는 3~4분기 순이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종목의 수익률이 호조를 보일 전망"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美 디폴트' 시한 나흘 앞으로

세계 금융 전문가들 "일어나지 않을 일" 분위기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글로벌 시장이 초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한 정치권 협상이 지지부진한 기운데, 재무부가 증액 시한으로 경고한 날짜인 17일(현지시간)이 성큼 다가왔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그동안 현재 16조7000억 달러(약 1경7900조원) 규모인 부채 한도에 맞추기 위해 각종 특별 조치를 취해왔으나 17일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은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시한 내에 증액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넘기면 시장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 정부가 시한을 넘기고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해 미국이 실제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에 설마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관가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미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이달 말까지 이어져 실제 디폴트 발생 직전에 타협하더라도 연말 장세는 긍정적일 수 있다"며 "4분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는 커지겠지만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겪을 혼란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젓고 있다.

이상재 연구원은 다음달 초 미국 디폴트가 현실화한다면 "금융 교란에 대한 공포감 확산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 경기에 대해서도 불안 심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2011년 8월과 유사한 충격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뉴스&뉴스

직장인의 결혼자금 규모 男 8300만원 女 4400만원

● 우리나라 직장인이 결혼하려면 남성 평균 8300만원, 여성은 44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결혼 준비 자금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성 응답자의 17%는 결혼을 위해 평균 1억~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5000만~6000만원(13.5%)이 거론됐다. 여성은 2000만~3000만원(31%), 3000만~4000만원(26.2%) 순으로 답했다.

직장인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항목은 '신혼집 마련'(38.3%)이었다.

/황윤희기자

예술의 전당 가을 콘서트 KT스카이라이프로 본다

● KT스카이라이프가 12일 예술의전당과 전략적 사업 제휴를 맺고 KT스카이라이프 후지필과 예술의전당이 함께하는 가을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스카이라이프는 예술의전당이 보유한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활용해 방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한편,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양측은 이번 제휴의 첫 번째 콘텐츠로 '사랑과 만남 이별 그리고 가을'이라는 주제로 가을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뮤지컬 배우 강소현·손준호, 소프라노 이명주, 테너 정의근, 바리톤 박경준 등이 출연했다.

/이재영기자

닛산 소형 SUV '쥬크' 출시 한국닛산은 14일 소형 SUV '쥬크'를 출시했다. 1.6 가솔린 터보엔진을 장착한 신차의 가격은 2690만원~2890만원으로 책정됐다. /연합뉴스

깜찍한 싱글 기전 다 모였네 14일 서울 독산동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싱글 기전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국 138개 매장 중 100곳에서 싱글 기전존을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 제공

한국 스마트폰시장 포화

美 SA, 올해 판매량 2630만대로 첫 감소 전망
"세계 최고사양 대중화 – 보조금·혁신 없는 영향"

소비자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한 혁신이 사라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결국 '레드오션'으로 전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과는 달리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14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630만 대로 지난해 3070만 대보다 약 14%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한 2007년 이래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뒷걸음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07년 20만 대에 불과했던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2010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해 690만 대 규모로 성장했다. 2011년 1750만 대로 대폭 늘어난 후 2012년에는 3070만 대를 기록해 정점을 찍었다.

SA는 올해 주춤한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해 기록한 판매 대수 3000만 대 고지는 다시 오르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 시장과는 다른 양상이다. SA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 1억7340만 대 규모에서 올해 3억1550만 대로 급성장한 후 2018년에는 4억2420만 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지난해 1억1490만 대, 올해 1억4300만 대, 2018년 1억7690만 대가 될 전망이다. 인도는 지난해 2050만 대에서 2018년 1억4000만 대로, 일본도 지난해 3650만 대에서 2018년 4740만 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마트폰 보급으로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채승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삼성과 애플 맞대결 구도가 펼쳐지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고사양 스마트폰이 대중화됐다"며 "지난해 스마트폰이 3000만 대 팔렸다는 것은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규제, 혁신 부재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 여파로 가격은 비싸졌는데 까다로운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만한 제품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mlee@metroseoul.co.kr

30대그룹 회사채 80조 '훌쩍'

SK 11조4100억 최대규모
내년말까지 29조 만기도래

30대 그룹의 미상환 회사채가 8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3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14일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30대 재벌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80조94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회사채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행된 공모·사모 회사채 기준이며 해외에서 발행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제외됐다.

그룹별로 SK가 하반기 1조3400억원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하는 것을 비롯해 미상환 회사채가 11조4100억원으로 30대 그룹 중 가장 많았다.

또 현대차가 8조410억원을 기록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한진이 6조660억원, 롯데가 6조4096억원, 삼성이 6조2990억원의 순으로 미상환 회사채 규모가 컸다.

LG 5조6560억원, 두산 4조8880억원, 신세계 2조8880억원, CJ 2조6400억원, STX 2조4700억원, 한화 2조2900억원, 현대 2조1800억원, 동국제강 2조800억원 순이다.

한진중공업 1조7900억원, 코오롱 1조7400억원, GS 1조6630억원, 동양 1조4980억원, 동부 1조4550억원, 금호아시아나 1조3200억원, 현대중공업 1조2500억원, LS 1조2000억원으로 만기를 앞둔 회사채 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특히 동양 등 일부 재벌 그룹이 잇따라 유동성 위기를 맞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28조96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주목된다. /김보근기자

"모닝콤보 세트 2000원에 드세요" 14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던킨도너츠 모닝콤보 출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모닝 제품 1개와 음료로 구성된 모닝콤보 세트 4종의 가격은 2600~3000원으로, 28일까지 2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80세도 가입 '진정한 실버암 보험'

라이나 무배당 갱신형 상품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문의 (080)951-8585 /김민지기자

뉴스 & 뉴스

잡코리아 '대학생 해외탐방'

●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대학생 해외탐방 지원 프로그램인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1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소재의 2·3·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재(휴)학생으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취뽀스터디서 모의 'SK 고사'

● 취업교육포털사이트 '취뽀스터디'(www.chippostudy.com)가 SK그룹의 종합역량검사인 SKCT의 출제 경향을 분석한 학습 자료와 온라인 모의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뽀스터디 회원으로 가입하는 구직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모델들이 올림푸스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 OM-D E-M1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진·혹한에도 1628만 화소 찰칵!

올림푸스 새 미러리스 'E-M1' 최고화질 자랑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렌즈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1628만 화소를 자랑하는 고품질 미러리스 카메라가 등장했다.

올림푸스한국은 14일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러리스 카메라 시리즈인 'OM-D'의 최신 제품 E-M1을 공개했다.

1628만 화소의 이 제품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화상 처리 엔진을 통해 역대 올림푸스 카메라 중 최고의 화질을 자랑한다.

특히 DSLR 카메라 표준인 포서드 체계의 미러리스 카메라 표준인 마이크로포서드 체계를 통합해 미러리스 카메라용 렌즈는 물론 DSLR 카메라용으로 나온 렌즈도 장착할 수 있다.

또 방진·방적 기능과 함께 영하 10도의 혹한에서도 작동하는 방한 기능까지 갖췄다.

카메라 무게는 보디 443g(배터리와 메모리 포함 시 497g)이며, 높은 강성을 자랑하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됐다.

올림푸스는 11월 정식 발매를 앞두고 오는 19~20일 소비자들이 OM-D E-M1을 직접 만져보고 촬영할 수 있는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6일까지 올림푸스 홈페이지(www.olympus.co.kr)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IT업계 'SW기부' 뜨겁다

MS '오피스 365' 기증 대표적 - 사회적 책임 홍보·고객확보 '1석3조'

IT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기부 바람이 훈훈하게 불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함께 자사 프로그램 홍보 기회도 얻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특성상 한번 이용하면 꾸준히 같은 제품을 사용한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IT 사설 투자가 어려운 비영리기구 및 비영리단체들을 위해 "오피스 365"를 무료로 기증하고 있다. 이 기증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4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총 89개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MS는 1983년부터 전 세계 비영리단체들에 65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기증해왔다.

알집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는 정보 소외계층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3년째 진행 중이다. 기증 컴퓨터에 알약 등의 자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15억원 상당의 기부 행보를 보였다. 이스트소프트는 '이스트소프트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뿐 아니라 전문 지식 공유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글과컴퓨터는 최근 '한컴오피스 2014'를 출시하며 캠페인 '당당하라 대한국민, 당당하라 오피스'를 진행 중이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제품을 이번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컴은 신제품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제품 기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훈 한국MS 상무는 "소프트웨어 기증은 경영 환경이 어려운 이들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원종회기자 unnius@metroseoul.co.kr

공항패션 종결자 콘테스트 14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주최로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항패션 종결자 시즌 3' 이벤트에서 모델들이 인화된 사진을 포토월에 붙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18일까지 김포국제공항,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제주공항에서 진행되며 매일 1명을 공항패션 종결자로 선정해 경품으로 제주 왕복 항공권 1매를 증정한다. /연합뉴스

광학 10배줌 LTE폰 "디카 비켜!"

삼성전자 '갤럭시S4 줌' 카메라 기능 시선집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광학 10배 줌 기능을 지닌 LTE 스마트폰 '갤럭시S4 줌'을 14일 국내에 출시한 가운데 이 제품이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갤S4 줌은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쓰는 일반 갤S4와 달리 1.5GHz 듀얼코어를 사용하지만 카메라 기능에 중점을 뒀다.

피사체를 더 가깝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광학 10배 줌을 지원하며,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해 디지털 카메라에 버금가는 고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광학 10배 줌, 1600만 화소는 적어도 중급 이상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 만큼 스마트폰임에도 충분히 디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카메라 경통을 돌리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되는 '줌 링'으로 찰나의 순간을 담아낼 수 있으며 일반 카메라와 동일한 촬영 버튼과 그립감을 제공한다. 다만 기존 갤S4와 달리 휴대가 다소 불편할 수 있고 사진 품질이 상위의 DSLR이나 미러리스보다는 떨어질 수 있어 제품 포지션이 애매할 가능성은 있다.

게다가 소니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엑스페리아 Z1'의 성능이 만만치 않아 이 제품을 기다리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박성훈기자 zen@

사이버 범죄 피해자 여성보다 남성 많아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 범죄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로 공개된 와이파이(무선인터넷)에 자주 접속하는 사용자는 사이버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인 보안 솔루션업체 시만텍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 노턴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용자는 2012년 46%에서 올해 41%로 감소했지만 1인당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지난해 197달러에서 298달러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34세 연령 중 사이버 범죄를 경험한 사람이 66%로 45~64세(54%)보다 많았다. 또 남성(64%)이 여성(58%)보다 사이버 범죄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요즘 뜨는 주방용품 '뚜껑 분리형'

패킹 사이 찌꺼기 제거 쉬워 위생적 관리에 도움

음식이 직접 닿는 주방용품은 무엇보다 위생에 철저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에는 세균 번식에 신경쓰면서도 날이 선선해지면 위생에 소홀해지기 쉽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음식과 음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똑똑한 주방용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보통 텀블러를 세척할 때 뚜껑과 본체만 분리해서 씻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뚜껑과 패킹 사이의 음료 찌꺼기를 제거하기 어렵다. 써모스 'JNL'의 음용구는 패킹본체에서 원터치로 쉽게 분리되고 패킹 또한 탈부착이 쉬워 입이나 음료가 직접 닿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테팔 '델리앤레이스트' 블렌더는 버튼 한번만 누르면 용기와 칼날이 쉽게 분리돼 간편 세척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출시된 미니 블렌더 중 최초로 유리 용기를 적용해 내구성은 물론 위생성까지 강화됐다.

칼꽂이도 속까지 씻을 수 있는 제품이 등장했다. 네오플램의 '항균 칼블록'은 밑부분을 살짝 들어주면 간단히 분리돼 내부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윗부분 뚜껑도 분리가 가능해 손을 넣어 내부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기존 밀폐용기는 뚜껑과 용기만 닦을 수 있었다면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뚜껑 안까지 세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리빙 브랜드 옥소의 '원터치 밀폐용기'는 뚜껑이 3중으로 분리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지은기자 sw@metroseoul.co.kr

흑임자 너비아니·곰탕 40% 할인

강강술래 창립 24주년 온·오프라인 사은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객 감사 파격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세트 1.08kg)를 40% 할인된 2만1600원에 판매한다.

환절기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선물세트(350㎖ 5팩-10인분)는 1만8900원, 10팩짜리 소용량세트(350㎖-20인분)는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하며 구입시 올인원 쥬크 화장품(1만원 상당)을 사은품으로 준다.

곰탕 대용량세트(800㎖-5팩 15인분)는 3만7800원,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정찰한우떡갈비(3세트 1.08kg)는 4만2000원 등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신림점에서는 오픈 13주년을 기념, 이달 25일까지 강강 술래·왕양념갈비 미뉴(생삐마쉬-쟁식류 제외)를 매장에서 시키면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한우불고기를 무료로 포장해준다.

또 강강·술래·왕양념갈비 포장 상품을 50% 할인 판매하며 3만원 이상 결제 시 냉면 무료쿠폰 1매, 10만원 이상은 2매를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공연 티켓, 아메리카맛요가의 VIP 요가회원권, 아트제지오 의원 적외선 침구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아웃도어스에선 망설이면 품절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27일까지 혜택 풍성

온라인 아웃도어 전문 쇼핑몰 '아웃도어스'가 오픈 2주년을 맞아 27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아웃도어스 홈페이지에 2주년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긴 총 2222명의 선착순 고객에게 에너지 음료 및 던킨 도너츠 등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이와 함께 '망설이는 순간 품절' 타임 세일'을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하루 세 번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구스다운재킷·등산용품·스포츠웨어 및 용품 등을 최대 90% 할인된 초특가로 선착순 판매한다.

우수고객을 위한 'VIP 멤버십 라운지'도 오픈, 아웃도어스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매년 진행되는 '제4회 해피위켄드' 행사는 26일에 열린다.

아웃도어스는 올해의 테마를 '소백산 트레킹'으로 정하고 80명의 고객과 함께 '소백산 단풍놀이 여행 스케치'에 나선다.

행사는 당일치기로 진행되며, 코스는 천미의 골짜기 희방계곡을 따라 연화봉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 탐방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웃도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웃도어스 김대중 팀장은 "오픈 2주년을 맞아 고객 사랑 보답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더불어 해피위켄드 행사로 소백산 등산을 통해 고객과 함께 가을 정취의 절정을 만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www.outdous.com /박지원기자

코레일 국내 최초 미사열차 독산성당 선자들 선난 여행

코레일관광개발이 지난 13일 독산동성당과 함께 국내 최초로 미사열차(사진)를 운행했다고 밝혔다.

미사열차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 미석적인 미사가 진행되는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이날 독산동성당의 450여 명의 신자들은 열차에서 미사를 보며 춘천까지 이동, 연계 버스를 이용해 화천군 파로호 안보전시관, 평화의 댐, 딴산유원지·토속어류 체험관·붕어섬 등을 당일 코스로 여행했다.

한편 19일에는 영등포성당 미사열차가 영등포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뉴스 & 뉴스

1~4호선 역사내 미샤매장 2015년 7월까지 운영 지속

●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동일역구내 동종영종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상가 53개를 빌려 화장품 브랜드숍을 운영했다. 그러나 7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메트로가 일방적으로 매장 철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법원에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재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쌤소나이트 17일 바자회

●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쌤소나이트가 17일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희망의 망고나무 후원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쌤소나이트, 쌤소나이트 레드·아메리칸 투어리스터 3개 제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바자회 판매수익금 일부와 입장료(1000원)는 사단법인 '희망의 망고나무'에 기부된다.

로젠빈 '갱년기 응원' 캠페인

● 풍무천건강생활의 갱년기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그린에 로젠빈은 갱년기로 힘든 엄마를 응원하는 '엄마 갤러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로젠빈의 캠페인 홈페이지(www.rosenbean.com)에 접속해 엄마의 추억이 담긴 작은 사진과 메시지를 등록하면 편지가 담긴 동영상 갤러리를 완성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로젠빈을 선물로 증정한다.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관절 무료 수술

엄홍길 휴먼재단 후원캠페인 "신청하세요"

과거에 비해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인간의 신체도 노화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발생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다.

◆장년층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 퇴행성관절염

사람의 체중을 모두 받게 되는 무릎은 우리가 신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 하나다. 체중을 받치며 걷고 뛰는 외부 충격을 받으며 무릎의 노화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지나 결국 무릎의 연골은 점점 닳게 된다. 뼈와 뼈가 부딪치지 않게 완충 작용을 하는 연골이 닳으면 결국엔 뼈가 서로 맞부딪쳐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퇴행성관절염이다.

이런 퇴행성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와 중기에는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말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 자게 될 정도다. 또 부종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점차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휘게 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국내에서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의 약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약물이나 수사 요법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현재는 진행된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관절을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로 통증을 없애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확보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케 한다. 즉 인공관절 수술은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이 모두 닳아버린 관절 대신 인공적으로 제작된 관절을 무릎 내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이런 인공관절은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춘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만 받을 경우 환자 부담금은 약 250만~300만원이며 양측 무릎을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가 든다. 수술 후에도 2~3주가량 입원을 해야 해 입원비와 간병비 역시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 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 비용 등도 있으며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난다.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인공관절 수술이 유일한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치료 방법이지만 수술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퇴행성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환을 방치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많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의 무료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방치해두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담당자에게 신청자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을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엄홍길(사진)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마땅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무릎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재웅 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신청창을 통해 신청

흡연·음주·비만땐 발병 위험 2배 상승

생활 속 뇌졸중 예방요령

뇌졸중은 우리나라 성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뇌졸중은 뇌혈관에 서서히 문제가 쌓여 혈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혀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병·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 인자가 있으면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에 뇌졸중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뇌졸중 발생 원인 중 60~70%를 차지하는 고혈압을 주의해야 한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정상인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4배나 높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식하는 식습관이 필요하다. 또 적정 체중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평상시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이와 함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흡연과 음주를 삼가야 한다. 흡연과 음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뇌졸중 발생 위험을 2배 가까이 높이기 때문이다. 과음 후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술을 마시지 않는 음주 휴일을 갖는 것도 좋다.

비만 역시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비만은 뇌졸중 위험을 2배 높이는 만큼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 관리에 힘써야 한다. 특히 정상 체중이면서 복부만 비만인 경우 질환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허리둘레가 1인치 늘어날 때마다 뇌졸중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

김정호 서울시 북부병원 뇌졸중 예방클리닉 과장은 "식습관 관리를 통한 체중 조절과 함께 금연·절주가 필수적"이라며 "뇌졸중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지고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릿하고 말이 어눌해지면 곧바로 병원을 방문해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류머티즘관절염 '골절률 4배'

여성이 남성보다 비율 높고 주로 척추·손목 부러져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골절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한양대병원 류마티스관절염 임상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KORONA' 코호트 연구 결과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표준화 골절 발생률이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는 KORONA에 등록된 3557명의 환자(여성 3049명·남성 508명)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임상연구센터는 이 환자들의 골절 발생률과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일반 성인 집단의 골절 유병률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골절 유병률은 1년 기준 10만 명당 213명으로 일반 성인 집단의 골절 유병률(56.21명)보다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절 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부위는 척추 및 손목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골밀도 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KORONA 등록 시점 이전 2년간 골밀도 검사를 실시한 환자는 31.9%로 전체 환자 중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쳤다.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45.2%만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다.

심승철 대한류마티스학회 홍보이사는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2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 평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 기자

한국릴리 '세계 봉사의 날' 손기정 공원 가꿔

한국릴리는 최근 '세계 봉사의 날'을 맞이 서울시 중구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공원 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 봉사의 날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한날 한시에 진행하는 전사적인 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 세계 릴리 직원 중 약 2만여 명이 지역 사회를 찾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릴리는 향후 1년간 정기적인 공원 가꾸기 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MUSICAL
MURDER BALLAD
뮤지컬 머더 발라드
사랑......
10월 15일(화) 오후 3시 1차 티켓오픈!
금요일, 토요일 심야 11시 공연 추가!
2013.11.05~2014.01.26
롯데카드 아트센터(합정역 메세나폴리스 2F)
최재웅 강태을 한지상 성두섭
홍경수 김신의 홍륜희 문진아
예매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김수로프로젝트 7탄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데뷔 최초 래퍼와 공동작업

가수 신승훈이 데뷔 23년 만에 처음으로 래퍼와 공동 작업을 했다.

신승훈은 4년만에 새 앨범 '그레이트 웨이브'를 발표하는 가운데 17일 발표할 선공개곡 '내가 많이 변했어'에서 다이나믹듀오의 최자와 호흡을 맞췄다. 소속사는 "경쾌한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에 힙합 비트가 어우러진 중독성 짙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피아노·R&B 조화된 음반

가수 케이윌이 18일 새 음반을 발표한다.

그는 김도훈 어니멀자가 더 네임 등 유명 프로듀서들이 제작에 참여한 이번 앨범에서 피아노 연주와 복고 스타일의 R&B 리듬이 어우러진 '촌스럽게 왜 이래'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소속사는 "이번 음반을 위해 훌륭한 작곡가들로부터 수백 곡을 받았다.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이번엔 캐나다서 공연·기부

가수 김장훈이 12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예술센터에서 전니 투어의 일환으로 먼저 공연을 개최했다.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개선을 위한 기부를 펼쳐온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토론토대에서 강연하고 이곳의 도서관이 소장 중인 아시아 서적 가운데 한국 서적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만 달러 기부를 약속했다.

섹시+청순 '프리마돈나' 발표

모델돌 나인뮤지스가 14일 정규 1집 '프리마 돈나'를 발표했다.

음원 출시와 함께 이날 공개한 뮤직비디오에서 나인뮤지스는 웨스턴 스타일의 카우걸로 섹시하면서도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노을 지는 갈대숲에서 모노톤의 의상과 청순한 이미지로 매혹적인 여성의 매력을 드러냈다.

상영 12일만에 170만 돌파 흥행질주 '소원' **이준익 감독**

명작 '소원'이 지난 주말 전국에서 44만4561명을 불러모아 상영 12일 만에 누적 관객수 171만9772명을 기록하며 흥행 순항 중이다. 그러나 메가폰을 잡은 이준익(54) 감독은 작품의 성공을 만끽하기보다 그저 다행이라고 여기는 듯한 표정이다. 평소 달변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상업영화 은퇴 선언을 3년 만에 번복한 계기와 '소원'의 메가폰을 잡은 이유와 관련해선 예전과 달리 최대한 말을 아끼기며 아주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동성폭행 소재 부담 없었다면 거짓"

– 앞으론 트위터로 은퇴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웃음)

SNS에 글 한 번 잘못 올렸다가 그만… 그동안 반성 많이 했다. 좀 봐달라. (웃음)

– 저予으로 제작을 겸하지 않은 영화였다

제작비가 얼마안시노 보는 만큼 연출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 처음 연출 제의를 받고 나서 고민이 많았을 듯 싶다

시나리오 자체만 놓고 보면 워낙 완성도가 뛰어나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재(유아 성폭행)가 소재인 만큼 매우 조심스러웠다. 부담을 가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 주인공 소원(이레)과 비슷한 또래의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다른 상업영화들처럼 소재와 관련해 자극적인 장면이 나올까봐 마음을 졸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다행히 보고 다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가장 듣고 싶었던 칭찬이다. "잘 만들었다" "훌륭하다" 등과 같은 반응보다도 말이다. 촬영은 물론 전후 과정에 불손한 태도가 스며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었어도 흥행만을 위한 극적인 장치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설경구·엄지원을 비롯한 전 출연진과 스태프 모두가 올바른 자세로 임한 덕분이다.

– 피해자의 후유증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치유하는 일종의 동화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코코몽을 등장시킨 것도 그래서다. 몸과 마음을 모두 다친 소원이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희망을 말하고 싶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응징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도덕관념의 주제 의식이 바뀌었다고나 할까? 오십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 소원 역의 이레양은 어떻게 캐스팅했나? 연기 경력도 전혀 없었다는데

눈빛을 보고 캐스팅을 마음먹었다. 잘 자란 아이들은 눈빛이 맑다. 이레양이 바로 그렇다. 실은 이레양의 부모님이 줄거리를 전해듣고 처음에는 출연을 반대하려 했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레양 본인에게 의사를 물었더니 이레양이 "영화인데 뭐예"라고 답했다더라. 이 모습부터가 얼마나 건강하고 훌륭하나. 촬영 과정에선 수시로 (이레양의) 부모님과 상의하고 극중에도 나오는 상담센터를 찾아 자문과 상담을 구하는 등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온 신경을 기울였다. 이레양이 만약 영화를 찍고 나서 마음을 다쳤던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해서였다.

피해자 후유증 극복 초점
영화보고 안도감 느꼈다면
그건 나에게 최고의 칭찬
물 흘러가듯 살고싶어요

– 차기작이 궁금하다

물 흘러가듯이 살고 싶다. 이 판에서 모든 걸 경험했나. 수십억원대의 빚도 져보고 ('왕의 남자' 로) 1000만 감독도 돼봤다. 아무 준비 없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 그저 노력하겠다면 너무 무책임해 보일까. (웃음)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디인기획실드리미율 디자인/김아람

대세그룹 엑소의 미소

정규 1집 판매량 91만장 돌파·밀리언셀러 등극 초읽기

대세 그룹 엑소가 국내 음반 시장에서 12년 만에 밀리언셀러 등극을 노린다.

엑소는 11일까지 1집 44만1332장(6월 3일 출시), 1집 리패키지 46만9641장(8월 5일 출시) 등 총 91만973장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앨범 판매량 90만 장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 새로운 음반킹으로 자리매김했다.

정규 1집 'XOXO(키스&허그)'는 현재도 음악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곧 100만 장 돌파의 대기록을 달성할 전망이어서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앨범 판매량 100만 장 돌파 기록은 김건모 7집, god 4집 등이 발표된 2001년 이후 전무했으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음반 시장이 붕괴된 후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시장이 등장한 2005년 이래 최초의 일인 만큼 엑소의 밀리언셀러 등극 여부에 가요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엑소는 9월 초 앨범 발매 3개월 만에 74만 장이라는 압도적인 판매고로 국내 가요계에서 12년 만에 앨범 판매량 70만 장이 넘는 진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 2013 최고의 음반킹임을 과시해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왕가네 식구들 막장 달고 또 달린다

시청률 30% 재돌파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이 시청률 30%를 다시 돌파하며 본격적인 대박 행진을 예고했다.

14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이 드라마는 전국 기준 시청률 30.4%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자체 최고 시청률로 12일 방송분보다 7.3%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앞서 지난달 말 방송됐던 10회는 30.3%를 기록하며 처음 30%대로 진입했다.

3대가 모여 사는 왕씨 일가의 다사다난한 가족 이야기를 그리는 '왕가네…'는 '히트작 제조기' 문영남 작가 특유의 필력에 조성하·오현경·오만석·이태란·김해숙 등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더해져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이달 들어선 처가살이에 시달리는 첫째 사위 고민중(조성하)이 첫사랑 오순정(김희정)을 그리워하고, 철없는 둘째 사위 허세달(오만석)이 불륜에 빠져들면서 막장 논란이 시청률 상승을 거들고 있다.

/조성준기자 when@

이영현 연예계종사자와 결혼

4인조 여성 보컬 그룹 빅마마 출신 가수 이영현(사진)이 다음달 2일 논현동 이기케하우스에서 결혼한다.

예비 신랑은 연예업계 종사자 조모씨로 이영현이 과거 몸담았던 기획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2003년 빅마마로 데뷔한 이영현은 2009년 솔로로 홀로섰다. 지난해 MBC '일밤-나는 가수다 2'에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았고, 최근에는 드라마 '굿 닥터'의 OST에 참여했다.

/유순호기자

조연 시모어 호프먼

더 화려해진 '헝거게임'

아카데미 수상 호프먼 등 특급배우 가세

올가을 최고 흥행 예정작으로 꼽히고 있는 '헝거게임: 캣칭 파이어'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특급 배우들과 스태프의 합류로 개봉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잔 콜린스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가상의 독재국가 판엠을 배경으로 소녀 캣니스(제니퍼 로렌스)가 살육 경기인 헝거게임에서 살아남아 민중 혁명을 주도한다는 줄거리다.

지난해 개봉됐던 1편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은 지구촌 전역에서 흥행 수입으로 무려 6억9124만7768달러(약 7403억원)를 쓸어담아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뒤를 잇는 인기 시리즈물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샘 클라플린

줄리앤 무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제니퍼 로렌스가 '캣칭 파이어'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역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필립 시모어 호프먼이 헝거게임의 새로운 운영자로 가세해 무게감을 더한다.

또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의 새내기 미남 스타 샘 클라플린이 헝거게임에 출전하는 피닉 오데어 역을 맡아 신선한 매력을 발산한다. 여기에 연기파 줄리앤 무어가 3편 '모킹제이 파트1'과 4편 '모킹제이 파트2'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연진 명단은 더욱 화려해질 전망이다.

한편 스태프의 면면도 출연진에 못지않다.

아카데미 각색상 수상작인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사이먼 뷰포이 작가와 '미스 리틀 선샤인'의 마이클 안트 감독이 스토리를 맡았고, '나는 전설이다'와 '콘스탄틴'의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이 메가폰을 새로 잡았다.

한편 '캣칭 파이어'는 미국을 제치고 다음달 11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된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영화 '토르: 다크 월드'의 배우 톰 히들스턴(왼쪽)과 케빈 파이기 마블 스튜디오 대표가 14일 기자회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박찬욱 감독 작품 어메이징"

'토르' 톰 히들스턴 내한 "공항찾은 500여 한국팬에 감동"

영화 '토르' 천둥의 신'의 속편 주역인 톰 히들스턴이 한국 영화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2년 만의 속편인 '토르: 다크 월드'의 홍보를 위해 내한한 히들스턴은 14일 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00여 명의 팬이 공항에 모였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평소 동경하던 한국에 처음 왔는데 따뜻하게 반겨주셨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히들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는 히들스턴은 "홍상수·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흥미롭게 봤다"며 '밤과 낮', '괴물', '올드보이' 등 이들의 영화 제목을 정확히 언급하며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홍상수·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고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화는 어둠의 종족이 신들의 고향 아스가르드와 지구를 침입하자, 토르(크리스 헴스워스)가 동생 로키(톰 히들스턴)에게 위험한 동맹을 제안하는 내용을 그렸다. 1억50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인 전편은 그 세 배에 달하는 4억4932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둬 국내 관객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속편에는 주인공 헴스워스를 비롯해 내털리 포트먼, 앤서니 홉킨스 등이 출연하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연출한 앨런 테일러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전편에 이어 절대 권력을 탐하는 로키 역을 맡은 히들스턴은 "로키는 악당이지만 매우 인간적인 캐릭터라 할 수 있다. 그가 지닌 질투·야망·자부심·허영은 모두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온다. 심리 분석을 통해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언맨' 시리즈, '토르' 시리즈 등의 원작을 영화화한 마블 스튜디오의 총괄 프로듀서 케빈 파이기는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꿈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기술적 진보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마블코믹스 원작 영화의 인기 이유를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e are ready to order. 외식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이제 디저트 드실래요?
B. I'd like to see the menu again, please.
A. Here you are, Ms. 아이스크림은 또한 세 가지 맛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B. What are they?
A. 저희 식당에는 바닐라, 초콜릿, 그리고 딸기 맛이 있습니다.

정답: Would you like some dessert now? / You also have your choice of three flavors of ice cream. / We have vanilla, chocolate, and strawberry.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생생영어팁

▶ How many are in your party?
일행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party는 '일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행이 모두 4명이에요'라고 할 때 We have four in our party 라고 말하면 됩니다. 또 짧고 빠른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는 간단하게 Four 라고만 해도 됩니다.

현재진행시제 긍정문

▶ be동사 뒤에 동사원형+ing를 쓴다

주어	be동사	
I	am	V-ing
he/she/it	is	
we/you/they	are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_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am writing an e-mail now. 나는 지금 이메일을 쓰고 있어.
2. She's driving. 그녀는 운전을 하고 있어.
3. My parents are traveling now. 우리 부모님은 여행 중이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Flash photography is not permitted ______ the Sakura Museum of Art.
(A) onto (B) among
(C) inside (D) toward

02 Dr. Weisman, who served for 25 years as an ______ part of the research team, will retire on March 30.
(A) integrate (B) integrally
(C) integration (D) integral

01 사쿠라 미술관에서는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 촬영이 허락되지 않는다.
해설 [illegible] (C) inside를 쓴다.
어휘 permit 을 허락하다
정답 (C) inside

02 연구 팀에 참여하는 한 명 구성원으로서 25년간 근무해온 와이즈먼 박사가 3월 30일에 은퇴할 것이다.
해설 [illegible] integral을 써야 한다.
어휘 part 일 구성원, 일원 integrate 를 통합하다 integrally 완전하게 integration 을 통합
integral 을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정답 (D) integral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느낌 및 분위기를 묘사하는 표현

It looks like ~처럼 보입니다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it is a beautiful day for a picnic. 소풍 가기 좋은 날로 보입니다 this is a famous place. 이곳은 유명한 곳으로 보입니다

It looks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quiet 조용한, 한가한		clean 깨끗한	
		popular 인기 있는		cozy 아늑한	
		interesting 흥미로운		peaceful 평화로운	
		pleasant 유쾌한		boring 지루한	
	날씨	warm 따뜻한		cold 추운	
		chilly 쌀쌀한		sunny 화창한	
		hot 더운		foggy 안개 낀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매직쇼(Magic Show)는 세계적 패션 행사다. 보통 2월과 8월에 열리는데 50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이 참가한다. 그 시작은 미국 서부지역 패션을 주도했던 지바(Jobb er)사장 관계자들의 파티였고, 당연히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막됐다. 매직쇼는 회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는데 이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는 행사 전후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사고, 쓰레기 문제로 전전긍긍했다. 라스베이거스는 이 틈을 파고들어 주최 측에 전시장 제공을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 및 프로그램을 약속하며 전시장을 캘리포니아주에서 네바다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세계 4대 컬렉션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에서 순연된다. 각국에서 열렸던 행사가 4대 컬렉션으로 묶여 지구촌 패션인의 잔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후원 덕분이었다. 벤츠는 '고급=아름다움=패션'이라는 등식을 설정했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여기에는 행사 진행 기관인 IMG가 모델 에이전시로서의 사업 영역을 보다 높은 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이 숨어있다.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과 동등한 관계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존재할 때 산업 전체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모델의 역할과 가치도 커진다는 계산이었다.

한국에는 왜 세계적 문화 행사가 없을까. 그 싹은 트여 있을까. 포털사이트에서 연간 펼쳐지는 문화 행사를 검색해보면 셀 수 없이 많다. 안타까운 것은 같은 주제의 행사가 여기저기에서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마저 엿보인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은 이미 거대해졌다. 큰 나누기가 눈에 보이는 행사는 후원하기에 너무 초라하다. 자연스레 외국 행사를 후원한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무엔티 타란티노 감독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주최 측이 그토록 애를 써도 오지 않았던 그가 봉준호 감독을 만나기 위해 방한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씁쓸하다. 지난 일요일 저녁 부산패션위크 개막 전야제에서는 가슴 한 쪽이 아렸다. 한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가 아니라 행사 자체가 주인공인 자리에 가보고 싶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친과 헤어진 뒤 외로운 술로 2016년까지 만남·헤어짐 반복

건강미녀님 여자 86년 2월 24일 음력 오전 10시40분

Q 결혼하려던 남자와 올해 갑자기 헤어졌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는데 소개팅 자리도 안 생기고 남자 만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배우자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A 2016년까지 배우자궁이 묶여있는 상태가 되고 자모궁(子母宮)에 충살이 충취되어 만남과 헤어짐의 교차가 큽니다. 생일지에 관살 충관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성격 변화가 많습니다. 기세등등하다 금세 수그러들어 시작은 좋은데 결실을 보기 어렵습니다. 외양내유(外陽內柔)이니 사람을 만나 빠르게 결과를 매듭지으려 하지 말고 늘 기다려주는 여유가짐을 가져보세요. 도화살(桃花殺)이 있어 용모가 아름다워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본인도 이성 문제로 결정이 편치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방광, 자궁질환에 유의하십시오. 중분(中分)부터 행복이 기약되는 길명이다 상심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해외경험 많은 회사 가고 싶어 출장 잦아지면 부부 갈등 필연

사이판 여자 79년 8월 26일 음력 오전 1시15~30분

Q 2009년 결혼해 4세 여아를 둔 워킹맘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데 타고난 팔자가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해외 무역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을 한다면 해외 출장 기회가 많은 회사로 갈 수 있을까요. 금전운도 궁금합니다.

A 고독한 월성(月星)이 따라다니는데 금전의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돌봐주는 쪽으로 생활한다면 어울리는 데 별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재고(財庫: 재물의 창고)를 두고 있으니 중래에는 알찬 재물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의 과정에서 금전 거래는 즉기롭지 않게 됩니다. 살다 보면 돈을 잘 쓰기도 하고 잘못 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출장이 잦다 보면 부부 간 갈등이 반드시 오게 되니 이직은 재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후를 논해본다면 밝음과 우울이 오가며 행복을 곁에 두고 소외감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취미거리를 찾는다면 노후가 여유있게 펼쳐질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2				5			
			9			3	1	8
	5	7				9		
	6		2		1		7	
		3				5	4	
7	3	1			2			
			5				3	6
			8					

		5			8			
			3			9		1
	2	6				8		
		7	6	3				9
6								4
3				5	7	2		
		8				4	2	
4		9			1			
			7		1			

스도쿠 정답

출제제공=보누스
한사 스도쿠 플래티넘 (아이들 리오스 지음)

신점[神占] 운세 10월 15일 (음 9월 11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공사 구별 엄격히 하라. 60년생 어렵게 시작한 일은 훌게 마무리된다. 72년생 염불하러 나서 무시하지 마라. 84년생 화려하게 주목받을 일 생긴다.

소 49년생 기대한 일이 성사된다. 61년생 자녀가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구나. 73년생 억울하게 지불할 사건 생긴다. 85년생 요행이다 괜실 부리다간 손해 자초.

호랑이 50년생 기지 없는 일엔 한 발 물러서라. 62년생 준비했던 일은 기회 온다. 74년생 물고기가 큰 강물을 만나니 즐겁구나. 86년생 가슴이 뛰는 이성과 이주한다.

토끼 51년생 과욕은 후회 부른다. 63년생 일이 꼬여도 당분간 목표 수정하지 마라. 75년생 결과는 아쉽지만 얻는 것도 많다. 87년생 기회는 또 오니 털고 일어나라.

용 52년생 익숙함에 속아 소홀 한 것 없지 마라. 64년생 중계한 일은 성공한다. 76년생 마음이 가난하니 불만이 늘어나는구나. 88년생 엇단 성과에 출근이 즐겁다.

뱀 53년생 금은 투자는 곧여 부스럼만 만든다. 65년생 스트레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77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9년생 친구 눈물 닦는 일에 앞장서라.

말 42년생 안보할 일은 선수를 쳐라. 54년생 동쪽에 가면 귀인이 기다린다. 66년생 자녀의 고민에 귀 기울여라. 78년생 자상한 배우자가 감동 보따리를 선물한다.

양 43년생 사람 추천할 일 생긴다. 55년생 화해의 악수는 기꺼이 받아라. 67년생 걱정했던 일은 좋은 방향으로 풀린다. 79년생 이익 얻으려면 먼저 고개 숙여라.

원숭이 44년생 이웃과 다투지 않도록 조심. 56년생 축하 인사 받을 경사 생긴다. 68년생 목표 어루려면 일 보 후퇴 필요. 80년생 공짜는 자갈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

닭 45년생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다. 57년생 긴장할 일 생기니 대비하라. 69년생 가족의 웃음 소리에 힘 솟는다. 81년생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주저하지 마라.

개 46년생 자기분 음식은 멀리하라. 58년생 금전적은 생각이 건강 실찌운다. 70년생 숙여 걱정한 일은 해피엔딩. 82년생 일이 원하는 대로 풀려 바랄 게 없다.

돼지 47년생 소일거리 생겨 하루가 짧다. 59년생 내 것이 아니면 욕심부리지 마라. 71년생 서둔 대답은 의혹과 크다. 83년생 피곤하지만 즐거운 추억 생겨 행복.

짜릿한 홈런 공방…두산 웃다

박병호 9회말 동점 스리런 - 최준석·오재원 13회 맞불

독심 의 두산 베어스가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2010년의 짜릿한 승리를 재현했다.

두산은 14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연장 13회 터진 최준석의 솔로포와 오재원의 스리런에 힘입어 8-5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두산은 준플레이오프에서 2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리버스 스윕을 달성한 것. 두산은 지난 2010년에도 롯데를 상대로 2연패 뒤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 한 바 있다.

두산은 16일부터 정규시즌 2위 LG 트윈스와 5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 준플레이오프 5차전(14일·목동)

두산	000	300	000	0005	8
넥센	000	000	003	0002	5

이날 승부는 연장 13회에 갈렸다. 두산은 4회초 이원석의 스리런이 터지며 3-0으로 앞서 갔지만 9회말 넥센 박병호가 극적인 동점 3점포를 날려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그러나 13회 공격에 나선 두산은 이종욱을 대신해 대타 최준석을 내세웠다. 최준석은 넥센 구원투수 강윤구의 공을 통타,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때렸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두산은 정수빈의 안타와 상대 패스트볼로 만든 찬스에서 민병헌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탰다. 이어 2사 1, 2루에서는 오재원이 승리를 확인하는 쐐기 3점포를 날리며 8-3까지 달아났다. 이날 승부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넥센은 13회말 공격에서 이택근의 투런 홈런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정성훈기자 ysp@metroseoul.co.kr

박병호 9회말 극적 3점포 날렸지만 넥센 4번타자 박병호가 14일 열린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5차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0-3으로 뒤지던 9회말 같은 수 있는 3점 홈런을 날려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갔다. /연합뉴스

류현진 "초반 실점 안할 것"

류현진(26·LA 다저스)이 꿈꾼 동화의 답을 구해내겠다며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졌다.

다저스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7전4선승제)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1~2차전을 모두 내주고 위기에 몰린 가운데, 15일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릴 3차전의 선발투수로 나설 류현진은 결전을 하루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실점 2연패로 부담은 있지만 초반 실점 없이 이기는 투구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인트루이스 에이스 애덤 웨인라이트와 맞대결을 펼칠 류현진은 "투수가 아닌 타자와 대결하는 것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적당히 긴장하고 던지겠다"고 밝혔다.

/조성준기자 when@

박인비 "1위 저력 보시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외환 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박인비(25·KB금융그룹·사진)가 이번 대회에서 세계 랭킹 1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14일 대회장인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인비는 후반기 2승을 하며 자신을 바짝 쫓고 있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에 대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페테르센과 같은 훌륭한 선수의 경기 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올 시즌 6승을 거두며 세계 랭킹 1위와 상금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용병 3명까지…용병타자 시대 다시 온다

내년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3명으로 늘어난다. 각 구단마다 분주해 졌다. 늘어나는 한 명은 타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쓸 만한 외국인 타자를 찾기 위해 스카우터들이 다시 미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한도를 늘리는 이유에는 프로야구의 위기감이 반영된 듯하다. 요즘 우리 야구가 재미없다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투수 위주의 경기에 공격도 잔재미는 있는데 큰 재미, 즉 홈런이 펑펑 터지는 맛이 없기 때문이다.

홈런은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꾸는 효과를 갖고 있다. 14일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리그(ALCS) 2차전에서 보스턴 데이비드 오티스는 1-5로 뒤진 8회말 2사 만루에서 홈런을 터트려 역전승을 이끌었고 시리즈 흐름을 가져왔다. 이것이 홈런의 진짜 맛이다.

최근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가 등장해 토종 홈런 타자의 멋을 잇고 있다. 그러나 홈런 부문은 소수의 싱거운 잔치였다. 각 구단들이 외국인을 모두 투수로 영입하면서 벌어진 현상이었다. 내년에 외국인 강타자들이 가세하면 토종 선수들과 박진감 넘치는 홈런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큰 재미를 주는 외국인 타자를 영입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외국인 타자들이 한국 투수들을 상대로 30개 홈런을 터트리기는 쉽지 않다. 한국 투수들은 유인구와 변화구가 많다. 스트라이크존도 약간 다르다. 우직 정 홈런 스윙만 하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이다.

메이저리그 강타자들처럼 넘치는 힘과 기술, 선구안이 있다면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 오는 타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 가운데 힘은 있지만 한두 가지는 빠지는 타자들이다. 몸값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돈을 들여 모셔와도 역시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스카우터 사이에서는 투수보다 타자 찾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역대 외국인 타자 가운데 성공한 타자는 몇몇 되지 않는다. 펠릭스 호세(롯데), 타이론 우즈(두산), 댄 로마이어(한화), 제이 데이비스(한화) 정도다. 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강타자 용병 선택을 놓고 도박이 다시 벌어진 셈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